

#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

김 진 희 (한국교원대학교)

## I.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인종, 민족, 성, 종교, 문화, 언어 등이 한 사회에서 어우러져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up>1)</sup>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 탈북이주민의 증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안전행정부의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주민등록기준)은 총 144만 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2500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계 각 층에서는 나름대로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듯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가 최근 과제가 되고 있음은 쉽게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국가 교육 정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내세우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계에서는 다문화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산출되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에 각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교육을 적용하고 방향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각 급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국어과의 개별 교과별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내용 및 교수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볼 수 있다.<sup>2)</sup>

1) 류혜숙(2010:53)에서 요약.

2) 국어교육 내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는 심도 깊게 다루어 졌다. 국어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연구	연구자(계재일자)
다문화 국어교육	원진숙(2007), 진선희(2010), 전은주(2009)

이처럼 다문화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화두인 동시에 국어교육과 큰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언어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은 국어 교육에서만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대체로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과를 막론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즉 다문화 학습자<sup>3)</sup>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엄격히 생각해 보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습자와 교류하는 일반 학습자도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학습자는 일반 학습자와 교실현장에서 상당 시간동안 만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끼리의 소통 및 교류가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학습자들은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포용력 등이 필요하므로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일반 학습자의 인식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습자뿐 아니라 일반 학습자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논의가 다문화 학습자만을 한정하여 논의한 점에 보완적인 연구가 되고자 일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sup>5)</sup> 특히 국어 교육의 영역 중의 하나인 ‘문법 교육’을 다문화 시대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문법’ 교육을 한정하여 주목하는 것은 ‘문법’ 영역은 우리말에 담긴 언어적 체계를 다루는 것으로 우리

각급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초등-원진숙(2008), 원진숙(2009), 장창영(2011), 최영환(2009) 중등-박영민(2009)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다문화 교육	김혜영(), 윤여탁(2013)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장미영(2013)
개별 교과별 다문화 교육	화법 : 조수진(2010), 한정현·김혜숙(2013), 권순희(2010) 독서 : 서민정(2009) 문법 : 강보선(2013), 박형우(2009)
다문화 교육내용 및 교수법	김혜영·전은주(2010), 전은주(2012), 김혜숙(2012), 한명숙(2009), 박영민·최숙기(2006)

- 3) ‘다문화 학습자’라는 용어는 박영민(2008)에서 제시된 용어로, 다문화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학습자라는 의미이다.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비주류 학생’, ‘소수자’, ‘다문화 학생’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문화 학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4) 배현주(2009:147)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특정 대상(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육’보다는 ‘사회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본래의 그 목적에 맞춰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학습자와 일반학습자가 다문화 교육의 대상으로서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모두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필자의 입장과 같이한다.
- 5) 본고의 논의는 기존의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논의를 부정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기존의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논의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며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본고는 다문화 교육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 학습자만을 한정하여 다문화시대의 문법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말의 의사소통의 기저가 되며 우리말의 문화, 국어 규범 등을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대의 언어 문체와 상당부분 접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문화 시대의 문법 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법 교육을 살펴본다. 다문화 시대의 교육적 요구를 알아보고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법 교육의 한계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 II. 다문화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법 교육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재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문법 교육이 다문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살피는 데 근간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법 교육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다문화 시대에서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은 범박하게 말하면 다문화 시대에서의 교육적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논자들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주관하는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여러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재개념화 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논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Banks(1994), Bennett(1995), Suleiman(2004)을 들 수 있다.<sup>6)</sup> Banks(2008)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협상,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기능을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공동체의 건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 정의한다. Bennett(1995)은 다문화 교육을 다양한 사회 혹은 하나의 독립된 세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민주적인 가치와 신념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라고 하고, Suleiman(2004)에서는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언어적 욕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6) Banks(1994)의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최충욱 외 11(2009)에서 Bennett (1995)과 Suleiman(2004)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김무정(2011)에서 재인용.

환경을 조성하는 다학문적 교육프로그램이라 정의한다.

안경식 외(2009)에서는 다문화 교육에서 다루는 주된 교육 내용의 범위를 둘로 나누어 제시한다. 하나는 다문화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차원의 교육이다. 전자는 다문화 가정을 소수자의 차원에서 그 복지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후자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수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다.<sup>7)</sup> 다문화 교육 내용의 하위 범주로 문화, 협력, 편견,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의 6가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sup>8)</sup>

[ <표 1> 다문화 교육 내용의 하위 범주 ]

하위범주	범주설명
문화	·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특징 알기 ·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 기르기 ·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협력	·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능력 증진하기 ·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 능력 증진하기
반 편견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문제 상황에 대처 능력 기르기
정체성 형성	· 긍정적 자아 개념 기르기 · 자아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평등성	· 국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지기 ·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다양성	·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 · 다양성 존중하는 마음 갖기

이상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교육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 한다.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 다문화학습자와 일반학습자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므로 이들과 소통 및 상호 교류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즉, 다문화 교육이란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학습자가 소통 및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7) 박선웅(2008), 채정란(1999)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소수자를 위한 교육에 크게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안목을 가지고 두 영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2008)에서 요약.

## 2. 다문화 교육에서 문법교육의 활용 가능성

여기서는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에서의 다문화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한다. 다문화 교육이 실현되는 현장인 교실에서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가장 먼저 부딪치는 장벽은 ‘언어 장벽’이다. 언어 장벽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다문화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언어적 이질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언어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조화로운 의사소통을 생산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문법 교육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Donna M.Gollnic과 Phillip C.Chinn(2009)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몇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으로 언어는 아동을 그들의 언어적·문화적 의사소통으로 사회화한다고 말한다. 즉 모국어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언어 의사소통의 규칙과 관습을 알고 준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국어 화자는 타인이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무례하고 무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의 사용은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언어는 구문을 형성하는 단어의 순서에 영향을 주는 것 말고도 사고 유형에 영향을 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수신자가 적절하게 메시지를 해독하려면 송신자와 충분한 문화적 유사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sup>9)</sup>

이처럼 언어는 언어사용자의 가치관, 문화, 세계관을 형성하며 그 것을 반영하여 의사소통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만남 속에서 언어적 이질성 즉,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주된 과제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서 일반학습자와 다문화학습자가 공존할 때, 문법 교육에서는 두 학습자가 언어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문법교육에서는 그들의 문화적·언어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의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는 ‘수용’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문화 교육이 국어과에서의 문법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교과적 특성을 들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문법’교과는 국어에 내재하여 있는 원리와 규칙을 두루 포함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sup>10)</sup>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언어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문법’교과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문법’교과는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국어의 구조를 주로 다루는 교과이다. 모어 화자의 내재된 국어의 생성 원리 및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능력의 향상을 지향하

9) 염철현(2012)에서 재인용하였으나 번역 진술에서 다소 모호한 단어들은 일부 수정하였다.

10)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41호[별책 5])에서 요약.

는 교과이다. 따라서 일반학습자는 문법교과의 학습을 통해 다문화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운 현상을 공감할 뿐 아니라 다문화학습자를 배려한 능동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문법' 교과는 문화가 반영된 언어로서의 국어를 다루는 교과이다. 특히 국어생활사는 문법교과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국어생활사에는 국어를 사용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국어를 사용하는 시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다문화 사회는 말 그대로 여러 나라의 문화가 혼종인 사회를 말한다. 국어생활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와 교류가 있었던 다양한 문화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언어, 민족, 종교 등이 혼종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상태에서 다문화 교육은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필수적인 교육이다. 교실에서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들이 공존하게 될 때 그들이 조화롭게 소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학습자의 일방적인 노력이 정답은 아니다. 일반학습자에 입각한 다문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반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수자료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현실성 있고 신속한 대안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교과과정을 활용했을 때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으며 다문화 교육이 교육적 효과도 파급력이 클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일반학습자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으며 시간적·비용적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자 한다. 다문화 학습자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논의하는 장에서 논의해야 부분이라 본다. 따라서 다음 3장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I. 다문화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법 교육의 한계

진술했듯이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 5월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기점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2006년에 '교과서 보완자료'를 발간·배포하였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주제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과에서의 ‘문법’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요소가 제시되어 있는 양상을 ‘목표’항과 ‘내용’항을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당시 시대의 흐름과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고찰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분석할 대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영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sup>11)</sup> 세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요소’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문법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관련 목표 ]

	목 표
2007 개정 교육과정	<p>국어에 대한 이해와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고 <b>국어와 국어 문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b>를 기른다.</p> <p>가.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p> <p>나.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p> <p>다. 국어를 사랑하고 <b>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b>시킨다.</p> <p>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인물사, 국어 운동사, 국어 수난사, <b>국어의 세계화<sup>12)</sup></b> 같은 것도 다루도록 하였다. (중략) 언어적 주체는 <b>공동체의 언어 문제를 점검 반성할 줄 아는 학습자</b>로서 과거 국어 문화뿐만 아니라 미래 <b>국어 문화의 발전 방향도 탐색할 줄 아는 학습자</b>가 되어야 한다.</p>
2009 개정 교육과정	<p>(중략)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켜 독서 문화를 향유하며 <b>국어와 국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b>를 기른다.(중략)</p> <p>다.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p> <p>라. (중략) 국어를 사랑하고 <b>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태도</b>를 기른다.</p>
2011 개정 교육과정	<p>가. 독서와 언어의 본질을 <b>사회 문화적 소통 차원에서</b>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해한다.</p> <p>나.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비판적·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p> <p>다.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며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p> <p>라. 독서와 문법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b>사회 현상을 성찰하며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b>를 기른다.</p>

11) 본고에서 살펴보는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법’ 영역만을 한정한다.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공통기본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까지 고찰해야 하지만, 국가공통기본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을 심화·확장한 것이 선택중심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이므로 편의상 선택중심교육과정만을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법’과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9·2011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이 합하여 ‘독서와 문법’과목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한 내용을 고찰할 때에는 임의적으로 ‘문법’영역에서 추출하여 고찰하였다.

12)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의 세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어의 발전은 한국어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국가의 발전과 연계된다. 21세기에는 문화의 힘을 배경으로 언어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문화상호주의 관점에서 국어의 발전을 도모해 문화 영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서의 기술은 다문화 시대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다문화 교육 내용의 요소를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목표’항에서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진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중 ‘국어의 세계화’ 또는 ‘공동체의 언어 문화’와 관련한 내용에서 다문화 교육의 관점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목표’항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점이 주춤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전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항과 동일한 진술은 있으나 추가적인 설명부분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목표’항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요소를 폭넓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표’항에서 ‘사회·문화적 소통’이라는 진술은 이전에 없었던 진술로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소통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에서의 기본적 전제인 문화적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현상을 성찰’한다는 진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2007·2009·2011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문법’영역에서 ‘목표’항의 진술을 살펴보았다. ‘목표’항은 간단한 몇 개의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요소를 포괄하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세 교육과정의 ‘목표’항을 살펴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다문화 교육 요소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으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요소를 선명하게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문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요소를 ‘성취기준’의 진술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표 3> 문법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요소 ]

	영역	내 용	
2007 개정 교육 과정	문법	성취기준	· 지역, 성별, 세대, 계층, 인종 간 언어 갈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현 국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여 해결책을 탐구한다. · 국외 한민족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 언어 사회의 언어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관련내용	· 인종 간 언어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었으나 2007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므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른 민족을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b>한국에 사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b> 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 해외 한인 언어 문제 사례를 이해하고 이종·다중 언어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성공 사례나 이상적 해결 모형을 탐구하도록 함이 필요하다.</b>
2009 개정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른 <b>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소통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b> 을 마련한다.
		관련내용	최근 한국은 사회적 변화 양상에 따라 다양성을 요구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b> 차별적인 언어 표현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성, 인종, 지역, 세대, 직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교육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서와 문법 II	성취기준	지역, 성별, 세대, 계층, 인종 간 언어 갈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b>현 국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여 해결책을 탐구</b> 한다.
		관련내용	인종 간 언어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었으나 최근에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언어 및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b>다른 민족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한국에 사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b> 한다.
2011 개정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	· (중략) <b>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b> 한다. ·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내용요소	· 언어는 인간과 사회를 이어 주는 매개체라는 인식 속에서 <b>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임을 이해</b> 하도록 한다. (중략) 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 지구촌 시대에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상을 확인하면서 국어가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b>한국어의 위상을 확인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b> 하면서 <b>우리 말글의 국제화를 모색</b> 하도록 한다.

<표 3>을 살펴보면 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다문화 교육요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다문화 교육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 다양한 언어 현상에서 발생하는 언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다문화 교육 요소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면에서 의문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질적 언어 현상의 본질을 추적하는 첫 단계인 점에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대체로 다문화·다언어 현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강조는 일반학습자가 다문화학습자의 언어적 이질성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다문화·다언어 현상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일반학습자가 다문화학습자에게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자칫하면 일반학습자가 다문화 학습자를 포용해야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추가적인 교육 방향이 필요할 것도 같다.

또한 언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교육 내용은 언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진술이며 일반학습자에게 갈등해소 방안을 직접 찾도록 하여 언어 갈등

해소 부담을 이양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추상적인 대안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최근의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법 교육차원에서 해결가능 한 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모습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에 문법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보다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교육의 방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문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둘째, 일반학습자가 다문화 학습자와의 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포용하는 태도를 지향하는 교육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셋째, 일반학습자가 다문화 학습자와의 언어 갈등을 보다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IV.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

이상에서 현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고려하여 다문화 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다문화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최근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에서 문법교육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문법지식을 통한 언어적 차이의 극복을 실현하는 문법교육

Jay(2003)에 의하면 언어는 집단 구성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발성음과 비언어적 시스템의 하나이다. 그러한 점에서 언어는 개인의 정체성·자각·지적·심리적 성장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라 한다. 또한 Meyerhoff(2006)에 의하면 언어가 국가적 정체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곧 언어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관념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정체감을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3) 염철현(2012)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원만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불신을 넘어서 집단 간의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다문화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따른 언어적 차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넘어서 다문화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주된 오류 양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학습자의 소통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다문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의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말의 구조(음운, 단어, 문장, 의미, 어휘)차원에서 추적하고, 이에 따라 다문화 학습자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법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별로 국어사용의 특성과 오류 양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워하는 문법적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반 학습자에게 우리말의 문법 지식과 관련 지어 지도함으로써 일반화 학습자는 다문화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표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나 인종을 비하하는 단어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차별적 어휘와 그 의미를 별도로 지도하여 단어 사용에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은 다문화시대에서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학습자의 언어적 차이에 따른 언어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서 언어 갈등에서 필요한 것은 다문화 시대에서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이해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문화 학습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법적 차원에서 근본 원인을 알고 언어 갈등의 상황이 닦혔을 때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이 동반되었을 때 이들의 언어 갈등의 해소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화자료를 통한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주목하는 문법 교육

다문화 시대에서 다문화 학습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한 국어 문법 요소만이 아닐 것이다.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계관들의 차이도 동반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시대에 문법 교육에서는 다문화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문화, 총체적으로 명명하면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주목하는 교육일 것이다.

다문화 시대는 다양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주목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인정을 통한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를 드러낸 텍스트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시대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구성원이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내용의 텍스트도 좋은 예가 될 있다. 예를 들면 ‘공동경비구역 JSA’나 ‘웰컴투 동막골’의 영화 텍스트는 탈북 이주민 학습자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아울러 국어생활사에 대한 자료는 당시 국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일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sup>14)</sup> 당시 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문법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어생활사가 문법교육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한 문법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삶의 모습을 생경하게 전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학습자의 삶과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법교육에서 국어생활사를 다루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sup>15)</sup> 국어 생활사는 언어(국어) 그 자체가 아닌 언어(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실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내용이다. 그러나 국어생활사에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인일 수만은 없고 국어가 고대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 우리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족의 개입과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생활사는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법 교육에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일반학습자가 국어생활사를 통해 국어 문화를 접하고 공유함으로써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법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보다 주목하여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문법교육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접근은 다문화현상을 차이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보편성으로 같고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가 우리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 3. 다문화의 통일성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문법 교육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그동안 강한 민족주의로 인하여 지배적인 주류 문화 속으로 소수의 문화가 동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sup>16)</sup> 이러한 동화주의는 다문화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14) 국어생활사는 논자에 따라 ‘어문생활사’, ‘국어문화사’, ‘국어생활사’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15) 구본관(2009:11)에서 7개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에 반영된 국어생활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ㄱ. 국어의 변천(②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③ 선인들의 국어 생활)’, ‘국어의 미래(① 통일 시대의 국어, ② 세계 속의 국어, ③ 국어와 인접 분야)’이다. ‘① 통일 시대의 국어’의 내용요소 중 ‘㉠ 지역, 성별, 세대, 계층, 인종 간 언어 갈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현 국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여 해결책을 탐구 한다.’와 ‘② 세계 속의 국어’의 내용요소 중 ‘㉡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급 방안을 탐구 한다’는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국어생활사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16) 원진숙(2007)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이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 볼 정책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용광로 정책이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용광로에 녹여 하나의 새로운 동질 문화를 형성하려는 이상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샐러드 볼 정책은 각각의 야채가 그 자체로 접시에 담겨 있지만 같이 있어서 더욱 야채의 맛을 나게 하는 것과 같이 각 집단은 그 나름이 가치관과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

결과를 가져오며 다문화 현상을 우리문화로 흡수한 형태의 통일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기반 할 때 다문화 시대의 문법 교육에서 다문화 현상을 통일하려는 관점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관점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문화를 일반 학습자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양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법 교육은 다문화의 상생을 전제로 각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가져와 문법 교육에 적용해 보면 좋을 듯하다. 비판적 다문화 주의는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중의 하나로 쉽게 설명하자면 학습자 개인이 다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그 문화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현상, 즉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sup>17)</sup>

이처럼 다문화의 통일성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대안으로 비판적인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적용할 때 문법 교육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존재하는 언어와 관련한 문제를 한정하여 다룰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에 따른 지배관계와 같은 문제를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토의·토론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식성까지 기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V. 나가며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 현실이라면 일반 학습자와 다문화 학습자가 공존하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과에서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솔한 고민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에 따른 연구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

---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 사회역시 발전할 수 있다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김혜숙(2013)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용광로 이론과 민족교육 이론이 혼합된 형태의 동화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징성 아래 여타의 문화를 흡수시키고 동화시키는 정책의 성격임을 지적하였다.

17)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에 해당한다. 나장함(2010:31)에 의하면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대한 표상이 역사적 과정과 권력 역동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주류집단이 규정한 다문화·소수 집단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 차별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초래하는가를 증명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말한다(Kincheocloe&Steinberg, 1997).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18) 비판적 문식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Garcia(2003)가 말한 비판적 문식성은 타인의 경험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는 행동력과 관련이 있다.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는 행동력을 요구하는 것이다(서민정, 2009에서 재인용).

나 대체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한정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재개념화 하고, 현 문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문법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최근 문법 교육에서는 일반 학습자가 다문화 학습자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 교육의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효과적이지만 우리 문화에 융합하고 동일하려는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문화 시대에서 문법 교육이 ‘문법 지식을 통한 언어적 차이의 극복을 실현하는 문법교육’, ‘문화자료를 통한 다문화 학습자의 삶에 주목하는 문법 교육’, ‘다문화의 통일성이 아닌 상생성을 추구하는 문법 교육’으로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점점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문법 교육의 방향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서의 구현이나 교수·학습방안의 실재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방향 차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고시 제 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교육과정. 고시 제 2011-361호.*
- 강보선(2013), *다문화 시대의 방언 교육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95, 558~580.
- 구본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 10, 1~48.
- 권순희(2010), *다문화시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국어교육학연구, 38, 33~70.
-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다문화 사회의 통합형 문법교육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93, 5~44.
- 김혜영(2012),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분류-소설과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0, 261~282.
- 김혜영·전은주(2010), *중등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 양상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38, 5~26.
- 김홍범(201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나라사랑, 119, 194~217.
- 류혜숙(2010), *도덕과 교육에서 탐구공동체 활동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윤리교육연구, 23, 53~73.
- 박영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54, 151~173.

- 박영민·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67~84.
- 박형우(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시고, 문법교육, 10, 145~173.
- 박휴용(2012),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 배현주(2009),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모색, 교육문화연구, 15(1), 139~164.
- 서민정(2009), 다문화 이해 교육 중심 제재 선정 원리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9, 229~259.
-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학지사.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23~47.
-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269~302.
-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157~188.
- 윤여탁(2013),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7~29.
- 장미영(2013),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동 방안, 국어문학, 54, 307~330.
- 장창영(2011), 다문화가정 학습자를 위한 국어교육 방안-초등학교 저학년의 표현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1, 357~389.
- 전은주(2009),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3, 99~133.
- 전은주(2012),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45, 51~78.
- 조수진(2010), 다문화 사회 학습자를 위한 화법 교육 내용 체계화 방향, 화법연구, 17, 71~97.
- 진선희(2010),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403~428.
- 채정란(1999),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생활 주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충욱(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양서원.
- 최영환(2009),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4, 27~55.
- 한명숙(2009), 다문화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교수내용지식, 공주교대논총, 46(2), 187~217.
- 한정현·김혜숙(2013), 다문화 시대 화법교육의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95, 181~220.
- Banks, J. A.(1996), Multicultural education, transformative knowledge, and action Historical and ano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 Teacher College Press.
- Banks, J.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Four Edition), Boston&London: Pearson Education, Inc.
- Bennett, C. I. (1995) Comprehensive Muticultural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MA: Allen & Bacon.
- Suleiman, M. F.(2004), Multicultural education : A blueprint for educators. In. G. S. Gollnick&Donna M.(2009), 염철현 역(2012), 다문화교육개론, 서울: 한울.

Goodman&K.T. Carey(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Hampton Press.  
Jay, T. (2003). The Psychology of language, Upper Saddle River, NJ:Prentice Hall.  
Meyerhoff, M. (2006). Introducing sociolinguistics, New york:Routledge.